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감리교회가 평신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선교와 봉사의 전초기지인 평신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적 삶을 결단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찬양으로 마음을 모으고, 2시부터 선교회별로 모여 월례회를 합니다.

1시에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6월 4일 저녁 7시 30분부터 6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기도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달 연합속회는 없습니다. 각 속별로 날짜를 정해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환경선교의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중/오복순 집사의 차남인 연선 씨가 이수연 씨와 6월 7일 (토) 오전 11시, KT여의도사옥 여의도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합니다.

1)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나누지 마시고 기도와 성경 읽기로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2)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시되 음식물은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큰 사랑의 하나님, 6월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두움도 생명과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좁고 어두운 마음까지 밝혀 주셔서 연약한 중에서도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봅니다. 교만과 욕심, 폭력과 물신숭배가 나날이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희생되고, 절망하고, 외면 당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무관심과 편의주의를 진심으로 참회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죄악의 현실을 '발전'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힘을 향해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새로운 현실을 열어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현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김철수 유영남 조병무 송양진 구명자 김인걸
 문영혜 박영희 김지윤 박규석 박경선 방민 이한림 김명희 임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정복순 조문규 진정숙 최종원 임고운 김지호
 장성호 최윤희 광경선 안종일 정현주 조관행 홍선희 권미숙 황지현
 이성운 김준호 오정숙 전세종

월정현금:

권혁순 박혜경 김극 김명순 김미순 왕수명 이동천 장재영 김재영
 최철수 광권희 황원순 황경순 황자순 김수진 김승현 윤여민 임보람
 박병희 박미영 이은자 문홍일 류건형 이주는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준우 우순덕 고유비 홍순구 안홍숙 박병구 정복순
 정은영 안정숙 하은주 오광자 오정숙 전세종 전성오 오래된 미래
 이성운 무명6

생일감사헌금: 박상규 김희은 김지호 권혁순 박혜경

	장혜숙	장혜숙	박영희	심심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심심
	임정자	임정자	이은옥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이명희	박경원
	안정숙	박애순	최희영	조병주
	박홍재	광권희	김춘려	심심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최희정	심심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심심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안홍숙
	백혜숙	정옥영	강미라	야외
	송양진	유경순	박옥식	송양진
	이영란	박미영	유혜경	방극숙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박혜경

낮은 목소리

더 작은 목소리로
 더 낮은 목소리로, 안 들려
 더 작은 목소리로, 안 들려, 들리질 않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줘
 라일락 같은 소리로
 모래 같은 소리로
 풀잎으로 풀잎으로
 모래로 모래로
 바가지로 바가지로
 손가락으로 말해줘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줘
 나의 귀는 좁고
 나의 감정은 좁고
 나의 꿈은 웅색해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너의 목소린 너무 크고 크다
 더더 낮고 작은 목소리로 들려줘
 저 폭포와 같은 소리로,
 천둥으로,
 그 소리로
 (장석남)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의 어둠을 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려는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사로운 이익과 편리에 길들여져 무심히 걷던 길을 돌이켜, 더 큰 생명과 소중한 평화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가게 해주십시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월례회	6월 기도의 밤
찬양 인도/장성호	인도/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송한별 선생 방문성 장로	인도자 김금순 집사

6월	영접위원	한상의 박창운 박석희 허정윤 김금순 조항미
	헌금위원	방문성 장혜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가

장애를 날개로

하나님의 어둠은 빛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란 피조물이든 간에
모든 생명의 뿌리에 닿아 있는 역설이다.(매튜 폭스)

얼마 전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열린 임윤아 작가의 전시회에 다녀왔다. <윤아의 그림 이야기>(에이블아트기획초대전)

임윤아는 막 대학을 졸업한 25살의 젊은 작가이다. 그는 선천성대사효소결핍증(페닐케톤뇨증)이라는 희귀장애를 지금도 앓고 있다. 효소의 결핍으로 뇌세포가 손상되어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손을 움직여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을 화폭에 매달리며 예술혼을 불태운 결과 불치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된 것이다.

사실 나는 일주일 전에 보내온 전시회 초대장에 쓰인 작가의 말에 감동하여 전시회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작가는 그 초대말에서 고통스런 예술적 체험에서 우러난 듯싶은 고백을 이렇게 들려준다.

“나의 몸이 유난히 떨리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날개가 돋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가의 이런 고백을 읽는 순간 뜨거운 전율에 사로잡혔다. 마치 무슨 벼락이라도 맞은 느낌이랄까...

전율의 순간이 지난 뒤, ‘하나님의 어둠은 빛’이라는 말이 작가의 말 위에 포개졌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하나님의 어둠의 심연을 꿰뚫어 본 것일까. 장애의 고통이 그런 깊은 안목을 갖도록 만든 것일지도!

그날 나는 전시회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사회자가 갑자기 나에게 축사를 하라기에 떠밀리듯 나아가 우리 길잡이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다. “윤아의 어둠은 빛입니다.....윤아의 고통은 축제입니다.”

들음의 신비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성취한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수용력에다 두셨습니다.

여기서 ‘수용력’이란 우리의 ‘귀’의 기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의 길잡이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리의 행보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각 덕택이 아니라 청각 덕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보는 행위가 내게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영원한 말씀을 듣는 사건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공격적이고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감각기관이라면, ‘귀’는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감각기관이다.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장수나 부귀나 명예보다 오히려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는 것이다. 현자들의 경구를 모아놓은 성경의 지혜문학을 연구한 한 신학자는 ‘인간의 인간다움은 듣는 것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성서를 보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등의 모든 진실한 구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겼다.

예수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늘 ‘무한’(無限)에 귀 기울이며 무한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살았기에 그처럼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랑의 성녀로 불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아 있을 때 어느 기자가 수녀를 만나 질문을 던졌다.

“수녀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질문에 수녀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들었습니다.”

기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러면 수녀님이 들을 때, 하나님은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도 들으십니다.”

--이 글은 고진하 목사가 <<기독교사상>>에 연재하고 있는 <마이스터 엑카르트와 함께 하는 ‘안으로의 여행’>에서 옮겨왔습니다.